

제8회 남가주 설교 페스티벌 경쟁 아닌 배움과 세움의 터

제8회 미국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10월 7일 오전 9시에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됐다.

총 3부로 구성된 설교 페스티벌은, 1부 개회예배, 2부 설교 페스티벌, 3부 심사 평가와 장학생 발표 순서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베데스다 대학교 찬양팀의 찬양 인도와 김지연 목사(베데스다 대학교)의 사회, 유임상 교수(윌드미션대학)의 기도,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의 환영인사, 임승진 목사(미주평안교회)의 설교, 정인호 총장(헨리안펠렐라대학교)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송정명 목사는 "2015년도에 설교 페스티벌이 시작되었다.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신학생들에게 설교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이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진 목사(미주평안교회)는 설교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목회의 바탕이라고 말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였고, 목회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목회자의 삶을 잃어버린다. 예배소 교회 상황은 이민교회 처럼 상당히 어려웠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니콜라당을 멀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았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한다. 일곱가지 칭찬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버렸으므로 그 모든 것은 헛것이 된다. 그 모든 것을 이겼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 버리면 우리 신앙이 아무 것도 아니다."

→4면으로 계속



제8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설교 페스티벌이 10월 7일 오전 9시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올해 우수상 트로피는 미주장신에게 돌아갔다. ©기독일보

美 교계 지도자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규탄

하마스 무장세력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사망자 수가 7일 현재(이하 현지시간) 7백 여명이 넘어선 가운데 미국 교계 지도자들이 이를 규탄하고 기도를 요청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 공격으로 4천 여명 이상이 부상을 입고 1백 여명이 인질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가자지구 주민 3백여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인 심차트 토라에 급습한 하마스는 지난 7일 다각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은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고 전투기를 배치해 이스라엘의 요새화된 국경을 육해, 공으로 돌파했다.

코랄리 장로교회 담임목사이자 신앙문화연구소 설립자인 로버트 J.파시엔자(Robert J. Pacienza)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이스라엘과 현지인들을 위한 긴급 기도 요청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건은 테러리스트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테러리스트 국가인 이란의 지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인들은 결과적으로 위협받을 인도주의적 권리와 종교 자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평화와 명예라는 성경적 의무와 정의로운 전쟁의 원칙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부당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고 했다.

치피 호토블리 주영 이스라엘 대사는 지



©Youtube capture

난 8일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질 구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어린이'와 '치매 환자'라고 말했다. 호토블리 대사는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무엇보다도 인질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 현재 가자지구에 인질로 잡혀 있는 1백여명이 넘는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이 보고된 직후, 초교파 단체인 기독교지도자회의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촉구했다. '반유대주의투쟁운동'(Combat Antisemitism Movement)의 사사 로이트만 드라트와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 공격은 양심에 충격을 준다"면서 "안식일 오전에 이스라엘 여성과 어린이들을 자신들의 집에서 살해한 야만적 행위 등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신속하고 명확히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사고

제2회 위 브릿지(We Bridge)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기독일보가 제2회 위 브릿지 컨퍼런스를 "전도와 양육"이란 주제로 11월 6(월)-8일(수)까지 사흘에 걸쳐 부에나 파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작은 교회 목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강의 주제로 삼아, 각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청해 강의를 진행합니다. 강의 내용 및 강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성경 중심 소그룹목회: 강사 유경재 목사(나성북교회)
- ② 말씀에 능력을 붙여 넣는 내러티브 설교(부제: 말주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 강사 김귀보 목사(달라스 큰나무교회 담임)
- ③ 전도는 기쁨이다: 강사 유성국 목사(Gospel To All 전도센터에서 풀 타임 전도사역, First Congregation Church 설교 목사)
- ④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 강사 유수

연 사모(캘리포니아 ABC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장) ⑤ 신전지 강의: 김영태 목사 ⑥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샬롬 김 박사(비전 멘토링 대표, 풀러신학대 철학박사) ⑦ 저녁 연합집회: 김영길 목사(TMF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

컨퍼런스의 참가 대상자는 담임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회자이며, 저녁 집회는 모든 목회자 및 성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위 브릿지 사역은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시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 남가주 지역의 이웃 교회들이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역을 통해 남가주 교회들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기 원하시는 남가주의 많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컨퍼런스 참석 문의: 213-739-0403
 webbridgeinfo@gmail.com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담"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리밍에서 자유로워지는 영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2023년 **대박**
태양광, 솔라!!
 2023년 IRA법 혜택 / 30% Tax Credit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 미국시장 1위 패널 사용 (25년 워런티)
 ● 설치비 없고, Zero Down (1년 뒤 부터 Payment)
 ● 전기료 70-80%절감 (전기차 사용도 무료)
BTS SOLAR DESIGN 213.500.8000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가을 스페셜

0.99%
 APR Financing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48개월까지 할부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 Months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Kona SEL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AWD

NEW 2023 HYUNDAI Santa Fe Hybrid Limited AWD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5 SEL

NEW 2023 HYUNDAI Ioniq6 SEL AWD
 \$7,500 Lease Cash Available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6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상담은 하나님의 일, 그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

지역사회 한인들의 정신건강을 돕기 위한 비영리단체 마음공간(Life Coaching Space, www.lifecoachingspace.org)이 지난 10월 8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만나교회(남강식 목사)에서 설립예배를 드렸다.

백미경 상담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기도 김창곤 목사(남가주 은혜선교회), 말씀 남강식 목사(만나교회), 마음공간 소개 최은희 상담가, 축사 임경남 목사(토기장이교회), 격려사 김은서 박사, 유현주 박사, 찬양, 축도 김진식 목사(ANC온누리교회 부목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남강식 목사는 요한복음 11:33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우시는 장면에 대해,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함께 아파하며 흘려주는 그 눈물이 그 사람의 빗장을 열고 죽음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담사는 먼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상대방을 치유하는 힘이 주어진다. ‘나를 한 인격체로 가진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소중한 사람



마음공간 상담사들. 맨 왼쪽 한수희 상담사, 가운데 백미경 상담사. 뒷 줄 최은희 상담사. ©기독교일보

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25살 아들을 등반사고로 잃은 니콜라스 월터스토프가 쓴 책<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Lament For a Son의 한 구절을 언급하며 설교를 마무리했다. “‘눈물 고인 눈으로 보리라. 그러면 이전에 마른 눈으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으리라.’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채워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최은희 상담사가 마음공간의 설립배경에 대해 “언어적 문화적 장벽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틈새를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 급할 때 빨리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 갈 수 있는 공간을 갖자는 마음에서 시작” 되었다고 말했다. 임경남 목사는, “마음공간을 통해 내담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내담자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되면 좋겠다”고 축사했다.

김은서 박사(전 웰드미선대학 교수)는 “상담은 하나님의 일이고 크리스천 상담사는 하나님을 대신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왜 갈등하고 이해받지 못하는가.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본다. 상담자는 그런 사람들이다”고 격려했다. 유현주 박사는 마음공간의 설립이 사도행전 2장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 ‘꿈을 꾸리라’를 연상시킨다며, 마음공간의 설립이 ‘이분들의 꿈이 하나씩 세상에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3년전 시작된 이 단체는 펜데믹 기간을 거치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줌으로 소그룹 세미나를 1년 반 이상 진행했다. 지금까지 은혜한교회, 위브리지, 발렌시아 새누리교회 등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내담자 66명, 부부 7커플을 만나 우울증, 양극성 장애, 공황장애, 부부갈등, 부모 자녀 관계, 결혼문제, 불안 강박 장애, 외도 상담을 통해 한인 공동체를 섬겨왔다. 상담은 문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디한 기자 문의: 213-332-0420/ lifecoachingspace@gmail.com/ www.lifecoachingspace.org

우크라이나 위한 월드쉐어USA 후원의 밤



월드쉐어USA가 10월 21일 저녁 7시에 새누리교회에서 후원의 밤을 연다. © 기독교일보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는 오는 10월 21일 저녁 7시 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구성전에서 World Share USA 후원의 밤을 갖는다. 종합 선교의 필요성을 인식한 월드쉐어 USA는 올봄에 주사랑 나눔 여성 합창단(이하 나눔합창단)을 창단하고 창단 발표회를 준비해 왔다. 나눔합창단은 각 교회에서 성가대로 활동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구성된 선교 합창단이다.

1부 예배, 2부 합창으로 구성된 후원의 밤에서 주사랑나눔여성합창단이 찬양과 가을 향기 가득한 가곡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월드쉐어USA는 이번 후원의 밤(나눔 합창단 창단 발표회) 행사의 모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전쟁 고아와 전쟁 미망인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발발한 지 20개월이 되는 우크라이-러시아 전쟁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수많은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을 낳았다. 전쟁터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 월드쉐어USA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구호활동을 지속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생생한 고통의 소식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미 기간시설과 생활 현상이 파괴된 지역의 주민들 생활은 무너졌고 심각한 상태다. 겨울을 지내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동욱 기자

무료 혈액검사, 독감 및 코로나 예방 접종



나이 암센터 아웃리치팀은 부스를 마련,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등 조기 발견 시 생존율이 높은 암의 무료 정기검사 정보를 안내한다. 고려보건소는 대장암 검사를 받지 못한 45-75세 한인들을 위해 대장암 검사가 가능한 무료 분변잠혈검사 키트를 준비했다.

LA 온누리교회 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암 발병율이 증가 추세라고 한다. 병을 키워 큰 병이 된 후에는 치료도 크고 힘들어 진다”며 “해가 거듭될수록 LA카운티 보건국, 시더스-사이나이 암센터 아웃리치팀, 고려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한인 커뮤니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올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누구나 독감 및 코로나 예방접종과 혈액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행사 홈페이지(www.yudogo.com)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10월 15일 예약 시간에 맞춰 교회를 방문하면 혈액 검사를 위한 채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적혈구·헤모글로빈·당 수치를 비롯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정도를 알 수 있으며 간·신장 기능 상태도 점검해 볼 수 있다. 기본 검사 외에 갑상선, 당화혈색소, 전립선암은 각 20\$, 비타민D검사는 30\$에 추가검사가 가능하다. 채혈 예약을 한 사람은 8시간 금식해야 한다.

김민선 기자 LA온누리교회: 743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전화: 213-382-5658

LA온누리교회(이정엽 목사)는 오는 10월 15일(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무료 독감, COVID-19 예방접종 및 혈액 검사, 무료 암 정기검진 안내 등 행사를 개최한다. 백신접종과 혈액검사를 원하는 한인은 누구나 사전 예약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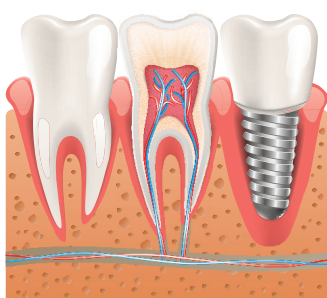
LA 온누리교회가 무료 혈액검사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 교회는 2021년부터는 LA 카운티 보건국과 협력해 무료로 독감 및 코비드19 백신접종도 함께 진행하게 됐다. 1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 모두 접종이 가능하다. 행사 당일 시더스-사이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리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하고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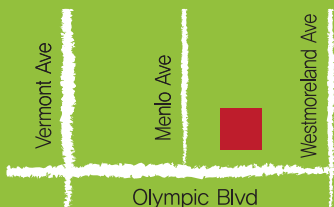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제2회 위브릿지 컨퍼런스 강사 인터뷰

첫 번째 강의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 유경재 목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위브릿지(We Bridge) 사역을 시작한 본지는 올해 “전도와 목양”을 주제로 <위브릿지 컨퍼런스(We Bridge)>를 오는 11월 6(월)-8일(수)까지 사흘에 걸쳐 부에나 파에 위치한 감사한인교회(구봉주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여섯개의 강의와 6일, 7일 저녁 집회가 진행된다.

▶유경재 목사(나성북부교회)가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에 대해서, ▶김귀보 목사(달라스 크나무교회 담임)가 ‘말씀에 능력을 불어넣는 내러티브 설교, 부제: 말쑤면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학’에 대해서, ▶유성국 목사(Gospel To All, First Congregation Church 설교 목사)가 ‘전도는 기쁨이다’라는 주제로, ▶유수연 사모(캘리포니아 ABC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장)가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김영태 목사가 ‘신천지’에 대해, ▶살롬 김 박사(비전 멘토링 대표)가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에 대해 강의한다.

저녁 연합집회는 김영길 목사(TMF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대표)가 강사로 서며, 원하트미니스트리가 인도한다.

<위브릿지 컨퍼런스>를 앞두고, 첫번째 강의 <1.성경 중심 소그룹목회>를 맡은 유경재 목사로부터 이번 강의에 대한 설명과 펜데믹 이후 급변하는 교회 환경에 적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 위브릿지 컨퍼런스에 강사로 섬겨주신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목사님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북부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는 유경재 목사입니다. 이번 위브릿지 컨퍼런스에 한 강의를 맡아 섬기게 되어 기쁜 마음이 큼니다.

◆ 목사님께서 강의하실 제목과 내용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성경 중심 소그룹 목회입니다. 저는 2018년도에 나성북부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지난 6년 동안 평신도 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연구하는 소그룹 사역



유경재 목사(나성북부교회)

에 집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에 대한 부담들도 있으셔서 적은 인원의 참여로 시작하였지만, 6년 동안 꾸준히 성경을 연구하는 소그룹 사역을 하다보니 이제는 성도님들 절반 이상이 자발적으로 주중에 성경공부 소그룹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에 6-7명정도로 구성하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주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4개 과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성경 본문을 직접 읽고 연구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은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강의식 보다는 일정 분

량을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도록 하고, 모임에서는 자신이 읽거나 연구한 내용을 나누는 것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펜데믹 이후 목회 환경이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 사역이 본질로 돌아간다면 귀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의 본질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역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설교나 강의처럼 듣는 것 중심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한다면 성경을 통한 영적 성장이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펜데믹 이후 영적 환경은 몰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직접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성경 공부나 강의를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직접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성경 공부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진행된 성경 중심 소그룹 사역에 대해 나누게 되면서 귀한 도전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위브릿지 컨퍼런스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원하트미니스트리가 기획하고, 기독일보와 ING가 주관하며, We Bridge 후원교회, 감사한인교회, 달라스 크나무교회가 후원한다. 김동욱 기자

생명의 전화에 걸려온 4,021통의 전화, 침묵 전화 가장 다

25주년 맞은 생명의전화, 돌로스 선교교회에서 창립 기념예배 드려

“이민 역사가 120년이다. 그동안 많은 발전과 성장이 있었지만 그 성장의 뒷면에 많은 그늘이 있었다. 그 그늘을 따뜻한 빛으로 비추신 것에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전화가 가장 많았다. 그보다 다섯배 정도 많은 게 침묵의 전화. 그 안에 여러가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도 잘 어루 만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25주년을 맞은 생명의 전화가 창립 기념 및 감사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전화의 사명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한인 사회의 가려진 뒷면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고, ‘상처 받은 이웃의 참된 친구’라는 사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임을 다짐했다.

생명의전화의 바다윗 목사는, 지난 3월 전도사 가정의 동반 자살해 한인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충격과 아픔을 넘어 충격과 가책과 무력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만일 우리 상담원과 연결이 되어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그 같은 사건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상처 입은 동포들의 마음을 다잡아 일으켜 주기 위해 25년을 한결 같이 전화기 앞에서 가슴 조이며 앉아 있었다”고 말했다.

10월 7일(토) 오후 4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돌로스 선교교회에서 바다윗 목사의 사회로 열린 감사예배는, 서오석 목사의 기도,



이기수 4천 시간, 조정심 2천 시간, 김태현 5백 시간, 잔 김 3백 시간 상담 봉사원 감사장 및 매달을 받았다. ©기독일보

성경봉독 박헬렌 전도사, 남가주목사 중창단의 특별찬양, 김준식 목사(남가주살롬교회)의 설교, 오위영 목사의 헌금 찬양, 김영완 총영사, 이정현 목사의 축사 및 바다윗 목사의 감사장 수여식, 이웅덕 목사(생명의전화 운영이사)의 광고, 이태환 목사(남가주한인 기독교원로목사회 전화장)의 축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준식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생명 줄이다. 60년 사이에 국민소득은 300배 이상이 올랐고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살게 되었지만 OECD 국가 중 한국의 행복지수는 최하위가 되었다. 비교의

식 때문이다. 한국에 가면 지하철에서 ‘평등’에 대해 듣게 된다. ‘당신은 아파트 몇 평에서 사는데’, ‘당신 아들 몇 등이야.’ 늘 남과 비교하고 상대적 발달감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간다.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말라고 한다.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삼대 축복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정현 목사(한기총 미주지역대표회장)는 “다가올 25년이 더 기대된다. 산에 올라갈 때 혼자 가면 빨리간다고 한다. 두 사람이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생명의 전화가 힘들고 어렵고 외면 받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면 의미있는 사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다윗 원장은 자신의 가정 문제조차 해결되지 않았던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기도하다 이민자들의 신분 문제, 가정 문제를 위로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며, 최근 새벽 2시에 걸려온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내담자와의 대화에 대해 나눴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다.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전화였다. 한 시간 상담을 하는데, 목소리를 들으니 50대는 넘은 것 같았다. ‘50년 사는 데도 고비가 있었을거 아닌가, 이번에도 잘 견뎌낼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내담자가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 묻고, 그렇다고 하자, 그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삼라만상이 잠든 밤에 상처를 안고 전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니 그가 울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다.”

작년 상담 내역 통계표를 의하면, 침묵전화(1427통), 고독 외로움(284통), 정보문의(271통), 비판 및 자살충동(219통), 정서장애-의처,의부증(199통) 등이 있었으며 총 4021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생명의 전화는 호주 시드니 중앙감리교회 목사인 Alan Walker가 자살 기도의 위험을 알면서도 막지 못한 아픔과 충격이 계기가 돼 전화 카운슬링을 통한 생명의 구급 운동으로 시작됐다. LA 생명의 전화는 1998년 6월 1일 바다윗 목사에 의해 개통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생명의 전화 213-480-0691(영육구원) 매일 오후 3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서부시간) 주디 한 기자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말씀과 현상이 만나는 역동적인 교육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교수진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미국연방인가기관 ATS 정회원” (2006년 취득)
1천명 이상의 세계 각국 교회 지도자 및 목회자 배출, 신학적 깊이와 사역경험이 탁월한 한미 교수진

로스퍼디 교수, Ph.D.
(영국스털링대학) 교회사

멜빈릭스 교수, Ph.D.
(폴리신학교) 조직신학

프리실리아도요 교수, D.Miss.
(폴리신학교) 타문화사역

데이빗 맥킨리 교수, D.Min.
(트리니티신학교) 리더십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한우리 교수, Ph.D.
(버클리연합신학대학원) 실천신학

2024년 겨울학기 한국어 학위 과정 모집

- 모집 학위과정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장학금
겨울학기 전 입학자 25%, 목회자 30%, 선교사 40% 장학금 혜택
- 제출서류
1. 입학원서 2. 신앙 및 지원동기 진술서 3. 대학(원) 졸업증명서(영문)
4. 성적증명서(영문) 5. 추천서(목회자 혹은 신학교 교수)
- 입학서류 양식 및 문의는 이메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ttps://itsla.edu/입학안내/>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겨울학기 접수기간	2023년 10월 10일(화) - 10월 31일(화)
합격자 발표	2023년 11월 7일(화)

- 겨울 학기 일정(10주)
2024년 1월 2일(화) - 3월 8일(금)
- 입학문의 www.itsla.edu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ITS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626) 653 9547 EXT.112 /admin.kor@itsla.edu

당신은 신학생을 지원하여 모든 열매에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540 E. Vine Ave., West Covina, CA 91790
626.653.9547 EXT. 112
admin.kor@itsla.edu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이창민 신임총회장 선출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담임)가 연합감리교회 총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10월 2일(월)부터 5일(목)까지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담임 조선훈 목사)에서 '2023년 특별한인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에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팬데믹과 교단 분리 및 탈퇴 논란으로 2019년 총회 이후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모인 이번

'특별한인총회'에는 미전역에서 한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 한인으로 영어 회중을 섬기는 목회자와 다음 세대 사역자, 기관 사역자 등 200여 명이 모였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창민 목사는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200여 한인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 한인으로 영어 회중을 섬기는 목회자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 총회와 연회에 속한 기관 사역자들과 신학교와 원목, 군목으로 사역하는 600명에 달하는 한인 사역자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명의 회복을 통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창민 총회장은 목회 현장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함께 협력하는 한인총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동성애 이슈와 관련해 한인 공동체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 전통 안에서 소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갈 수 있도록 한인목회 강화협의회(사무총장 장학순 목사)와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2024년에 열릴 연합감리교회 총회를 대비할 것임을 밝혔다.

이 총회장은 또 "다음 세대를 이끌 목회자를 발굴하고 훈련하기 위한 목회자 학교를 다시 활성화하고, 한인 공동체가 가진 선교적 역

량을 모아 복음 전파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목회 현장의 대표들이 포함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창민 총회장은 지난 몇 년간 연합감리교회에서 논란이 된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깊은 회개와 더불어 이에 따라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를 대표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그는 비록 교단을 떠난 교회와 성도들일지라도 여전히 보듬고 사랑해야 할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창민 총회장은 폐회 예배 설교를 통해 "여전히 우리는 짙은 안개 속에서 파도를 넘어 헤엄치는 사람들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고, 지쳐서 더 이상 헤엄칠 힘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개 너머에 있는 목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비록 허우적떨지라도, 함께 허우적대는 사명의 동역자들이 되어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한인총회가 되어야 합니다"라며 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를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한인 공동체를 위로하고, 부르심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비전 공동체로 이끌 것임을 약속했다. 김민선 기자

→1면 기사 "제8회 남가주 설교 페스티벌" 에 이어서

이어서 이민교회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했다. "이민교회 33년 섬기고 있다. 이민교회 목회가 쉽지 않다. 모든 목회자가 느끼는 것은 교회를 애지중지하고, 공항 픽업에서부터, 학교도, 이사도 도와주고, 일자리도 찾아 주고 그러다가 쉽게 떠나버리면 지치고 쓰러져 목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목회자와 교인과의 갈등이라든지, 스텝이 부족하다든지, 아내 등이 일을 해야 하고, 목회자 자신도 다른 일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너희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목회하고 선교했는지 알고 있다.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이길 수 있던 힘은 주님께 받은 사랑. 그것이 그의 사역의 비결이었다."

이번 설교 페스티벌에서는 남가주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인가를 취득한 8개 신학대학교 가운데 각 대표들인 이영숙 전도사(헨리아펜젤러대학교), 박낙현 전도사(에반겔리아대학교), 강석변 전도사(미성대), 오일해 전도사(미주장신), 김현숙 전도사(베데스다), 김동현 전도사(국제개혁), 손종수 전도사(월드미션), 이재민 전도사(그레이스미션)가 참가해 그들이 준비한 설교를 전했다.

김재권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3부 순서는 김은철 교수의 심사평에 이어, 시상과 장학금 수여가 진행되었고, 최상준 교수(베데스다)의 기도로 마쳤다. 심사는 헨리아펜젤러, 에반겔리아, 미성, 미주장신, 베데스다, 국제개혁, 월드미션, 그레이스미션, 미주성서화본부의 교수들과 청중평가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심사의 공정함을 위해 본고 발표자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제8회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우수상-오일해 전도사, 모범상-김현숙 전도사, 주해상-강석변 전도사, 전달상-이재민 전도사, 비전상-박낙현 전도사, 발전상-이영숙 전도사, 부흥상-손종수 전도사, 은혜상-김동현 전도사이다. 우수상, 모범상 수상자의 설교는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방송된다. 감사한인교회, 기쁜우리교회, 나성순복음교회, 미주평안교회, 베델교회, 새생명비전교회, 은혜한인교회, 코너스톤교회, 토렌스조은교회에서 장학금을 후원했다.

이번 설교페스티벌은 미주성서화본부에서 주최하고 베데스다대학이 주관하고, 미주평안교회가 장소를 제공했다. 김동욱 기자

LA 최초 코리안 댄스 뮤지컬 CHOSEN



성경 속 이방 여인들의 믿음의 선택을 한국의 전통 춤과 음악에 접목한 댄스 뮤지컬 공연이 10월 7일(토) 오후 7시 월서 이벨 극장 무대에 올라, 남녀노소, 인종과 문화를 넘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이방 여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결단을 목상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나오미 역에 조윤희, 룯 역에 박지선, 라합 역에 이은지, 보아즈 역에는 이우현(뮤지컬 보컬 그룹 소리어스Soriers)이 열연했으며, 엘리스 최(메니징 디렉터), 신원철(작곡), 존 추(작곡), 노정애(고운춤무용단 단장), 구나영(한울무용단), 심요섭, 김용주, 연주현, 제이미 김, 김중영(Threshing Floor), 테드 오(파워 라인 댄스 단장), 구해진(Threshing Floor), 그레이스 유, 제인 안 등이 출연했다. 주디 한 기자

교회 단신

한길교회는 10/14(토) 1시-5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강사 이진아 대표)를 소셜메일에서 진행한다.

은혜한인교회는 10/14(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VC로비에서 교인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및 독감예방접종(무료)를 실시한다. 10/31(화) 오후 5시-8시까지 아기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카니발 '할렐루야 나이트'를 연다. 많은 놀이기구, 상품, 캔들, 핫도그를 준비했다.

미주복음방송(GBC)은 10/20(금)-21(토) '차세대 장애 사역 리더 양성'을 주제로 발달장애 컨퍼런스를 ANC 온누리교회(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에서 개최한다. 10/20 오후 2시 ANC온누리교회 분당에서 열리는 사전 컨퍼런스 'Disability 101 : 포용적 장애 사역'의 강사 제니 본 토벨(Jenni Von Tobel)은 월로우 크릭 교회에서 29년간 장애사역을 해왔다.

이웃과 함께 하는 OMC 패밀리 페스티벌이 10/28(토)-11/4(토)까지 진행된다. His Show 뮤지컬 공연은 28일과 11월 4일 오후 1시 분당에서, 성경박물관은 10/28-11/4 교육관에서, 홀리윈은 31일 오후 6시에 진행된다.

남가주 사랑의교회는 10/31(화) 오후 5:30-9시까지 글로우 가족 축제(GLOW Family Festival)를 분당과 비전 플라자에서 개최한다.

새생명비전교회는 10/31(화) 오후 5시-8:40까지 홀리윈(Holy Win) 행사를 연다. 바

운스 하우스, 영화, 레이저 태그 게임, 코튼 캔디, 팝콘, 핫도그 같은 음식이 제공된다.

등록: www.kidsrock.nlvc.org/step-up-graduation 감사한인교회는 10/31(화) 저녁 5-9시 교회 주차장에서 Hallelujah Night을 개최한다. 등록은 필수(10/15일까지)이며 교회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http://thanksgivingchurch.com/>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100% UC대학 이상 합격 시켜온 퀄리티 그대로... 14년간 온라인 수업도 함께 해온 학교를 믿으세요!

NCA 사립학교

Now Enrolling IB PYP(K~5TH) • MYP(6TH~10TH) • DP(11TH~12TH)

COVID-19 시대의 교육 ▶▶ 집과 학교, 어디든 병행수업이 가능한 NCA 온라인 시스템!



NCA만의 효율적인 Technology 제공



완전한 온라인 캠퍼스 환경 구축



커뮤니케이션 툴로 간편하게 정보 이용



검증된 LMS와 앱으로 높은 참여, 빠른 피드백



교사와 학생들 간의 디지털 콘텐츠 공유



데이터에 근거한 학생별 맞춤 교육

- ▶▶ 졸업생 100% UC계열 대학에 합격
- ▶▶ 12학년 평균 SAT 1,390점의 우수한 성적
- ▶▶ 매일의 학업성취 데이터 확보, 학생별 맞춤교육
- ▶▶ 11:1 학생 교사 비율로 효율적 온라인 교육
- ▶▶ 최대 1/3 수준의 저렴한 학비부담(타 사립학교 대비)
- ▶▶ 기독교 바탕의 실력, 인성을 겸비한 인재교육
- ▶▶ LA 유일, 세계적 프로그램 IB* 실행(International Baccalaureate) 및 졸업증 수여자격 보유

*IB 프로그램이란? 전 세계 약 4,000개 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인증 학위제도입니다.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213) 487-5437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www.e-NCA.org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외래 진료 클리닉

희를
굿다

드디어,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조이스 리, M.D.

진료과목

만성 질환

→ 당뇨, 비만,
관절염, 고혈압,
골다공증

노인성 질환

→ 치매, 낙상,
우울증, 요실금,
수면장애, 보행
장애, 영양실조

부인과 질환

→ 질염, 골반염,
자궁경부염

예방 접종

왜 병원에서의 기다림을 당연하게 여기시나요?

오랜 대기시간만큼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아오셨나요?

무성의 진료로 숨은 병을 발견하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사태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시니어 환자분들을 위해 최적의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센터메디컬클리닉을 경험해 보세요.

하루 진료 환자 최대 7명, 인당 최대 1시간!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 환자 등록 선착순 300명까지 / 진료 사전 예약 필수

- 세분화된 현대의학 단점 보완
- 질병 예방·건강한 삶 유지 초점

가정의학과
조이스 리 초대 주치의
Joice Rhee, M.D.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진료시간 : 월 - 금 8:30 am ~ 5:30 pm
(714) 519-3024 *예약과 자세한 사항은 전화 부탁드립니다.
1995 W Malvern Ave, Unit A, Fullerton, CA 92833

* 플러튼 골드짐 근처 T-Mobile과 Subway 사이에 위치

“두 교회가 통합했으니 대안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테메쿨라에 위치한 갈보리사랑교회, “‘원 스피릿’ 으로 세대간 온전한 통합 이룰 것”

LA다운타운에서 남동쪽으로 87마일 정도 떨어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도시 테메쿨라(Temecula). 시 북서쪽부터 북으로 뮌리에 타가 감싸고 있는데 두 도시에 약 한인들이 3천 여명 거주하고 있다. 테메쿨라는 와인 재배지와 골프장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이곳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팬데믹 기간에 남가주에도 많은 한인교회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고 교계가 다소 위축됐지만, 테메쿨라에 두 작은 교회가 통합하는 기본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갈보리사랑교회의 허평강 목사는 지난해 두 교회의 통합을 통해서 지역에 대안이 되는 교회를 만들고자 고군분투 중이다. 신앙의 다양한 배경, 그리고 1세와 2세, 3세대까지 있는 세대 간의 갈등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한인교회의 숙원 사업을 원 스피릿(One Spirit)으로 타개해 나가려고 하는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왼쪽부터 행정총괄 황참한 목사, 허평강 담임목사, 목양총괄 박재연 목사 ©기록일보

개월 만에 숫자상으로 많이 회복됐다. 5개월 만에 8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 성도들 사이에 합병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다. 예수사랑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테메쿨라갈보리교회는 성도들이 없었고 담임목사님마저 사임 한 상황이었다. 옆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물론 테메쿨라갈보리교회에는 교단에서 임시 담회장을 파송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있었다. 임시담회장을 만나서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이 지역에 왔을 때 어르신들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부흥을 주셨더라고. 비전도 이야기했다.

교단에서 임시담회장 파송할 정도면 보통 담임목사 내정을 한다. 그런데 그동안 몇몇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왔는데 큰 관심이 없었다고 했다. 임시담회장이 한가지 이야기를 했다. 당신이 우리 교단에 가입하라. 첫 만남에서 교단 가입신청서를 내밀었다. 제가 한국에서는 예상합동 소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는 교단 가입을 안 하게 하셨다. 그날로 가입 신청서를 써서 보냈다. 10월 초에 만나고 두 달 만에 공동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두 교회가 합병하기로 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

교회 렌트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안 하게 했는데 이상하게 테메쿨라갈보리교회에서 합병을 서둘렀다. 그래서 2월 12일에 합병 예배를 드렸다. 두 교회의 합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 캐스팅으로 세가지를 나눴다.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비전 캐스팅

첫 번째로 이 지역에는 교회가 분열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기치를 걸었던 것이 교회가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사회적 메시지를 주자는 것이었다. 두번째는 아쉬울 것 없는 교회가 합치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예수

사랑교회는 굳이 합병 안 해도 되는 교회였고 테메쿨라갈보리교회도 성장이 가능한 교회였다. 아쉬울 것이 없는 두 교회가 합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성교회와 아닌,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대안이 되는 교회 보여주자는 것이었다.

어떤 분들은 예배 훈련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의 큰 교회에 간다. 다락방 같은 소규모 그룹을 제공하는 교회가 없어서 멀리까지 가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안을 주는 교회가 되자고 한 것이 성도들에게 흡수가 된 것 같다. 없었던 것을 해보는 것이니 설레었다. 목사나 성도들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설레는 비전을 가지고 부딪힌 것이다. 통합된 지 6개월 정도 지나고 197명이 예배드리는데 감격이 있었다.

지역교협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원래 4명이 모였었는데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모이게 되었다고 한다. 감사한 것은 저에게 보여주신 환영의 모습이였다. 저를 축복해 주시고 지역에 교회가 잘되는 것을 반겨주셨다.

갈보리사랑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순수함과 성숙함이 있다.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으셨다. 어느 한 분도 모나게 권리를 주장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을 표현했을 때 잘 흡수하신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열심이 있었다. 목사가 기도하고 이쪽이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열심히 따라와 주셨다. 식사나 주차관리 등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알아서 척척 준비해 주셨다. 사실 말이 두 교회가 합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교회 각 공간이 딱 차 있어서 살림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다. 2층 채플실에도 EM이 한동안 썼었는데 그곳도 차 있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역은?

작은 교회가 가진 약한 부분이 있다면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 실제 시스템으로 되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쉽지 않다. 대부분 리소스가 없고, 담임 목사 위주로 하고 있다. 엔데믹 때 회복이 높은 교회일수록 소규모

모 그룹 사역이 잘되고 있다. 처음에 소규모 제자훈련을 해보고 싶었는데 인력이 없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목사를 청빙했다. 교회에 풀타임 부목사가 없었다.

합병하자마자 부교역자를 열심히 찾았는데 어려웠다. 요즘 대도시에서 유스 사역자를 찾기가 어려운데 작은 교회는 몇 배 어렵다. 유스사역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두 분의 목사님들이 연결되어서 7월 15일부로 풀타임 부목회자를 허락해 주셨다.

두 목회자의 부임으로 소그룹 제자 사역 할게

그동안 저는 제자 훈련을 14년 동안 해왔다. 얼마 전 교회에서 교리기본, 교회론의 기초를 강조하는 새일꾼반을 시작해서 3주차로 들어갔다. 순장 훈련은 지난주에 끝났다. 다음 주부터 가정에서 소그룹이 모이게 된다. 예전에는 새벽기도를 못 하고 있었는데 특별새벽기도 기간에 50명이 모였고, 지금도 25여 명이 모이고 있다. 이 정도 크기의 교회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솔직히 부목사들을 모셔 올 때 걱정들도 있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거냐는 질문이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결단해 주셨고 찬성해 주셨다. 이분들이 부임한 지 3개월 되었는데 지금 훈련을 3개 하고 있다. 성도님들이 인도자가 있어야 훈련이 되는구나.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목회 철학이 있다면?

목회 철학은 원 처치(One Church)이다. 원 스피리츨(One Spiritual)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에 있을 때는 보통 같은 교단 내에서 신앙 생활 경험했는데, 여기 한인교회와보니깐 한 교회 내에도 통합, 합동, 순복음 등 교단 배경이 다양하다. 다양하게 섞여 있으니까 자칫하면 영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이 영성이라고 생각한다. 한 말씀 안에서 한 영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100퍼센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원 커뮤니티를 이루는 것이 저의 최고의 목회 숙원이 될 것 같다.

앞으로 2세 3세 EM 사역이 주도권 가지도록 해야.. 12월에 2부 영어예배 신설 예정

다음세대가 제대로 하는 목회를 보지 못했다. 많은 2세들이 지금 40-50대이다. 한편으로 저는 빨리 영어권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이제 3세 시대가 온다. 저희 교회에서는 3세 유스스쿨을 하고 있다. 미국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정체성을 가지고 한인 교회에 온다. 메인 예배 11시가 영어권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음세대에게 목회를 물려줄 때 영어권 목회가 자연스러운 교회가 되어야지 한인교회에 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월 초에 2부 영어 예배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엔 과감하게 결단해서 하나하나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토마스 맹 기자

-두 교회가 통합했다고 들었다.

두 교회가 합쳤다. 한국에서 종신대를 졸업하고 분당중앙교회 7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 와서 2년 동안 석사 공부를 마치고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했다. 그리고 부름이 있어서 지금의 교회로 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청빙을 받고 오게 됐다. 테메쿨라갈보리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다. 이종교가 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교세가 떨어지고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이였다. 사실 저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허평강 목사 ©기록일보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었고 여기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예수사랑교회 측에서 어려움이 있어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가장 컸다. 제가 오지 아니면 교회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했다니 가라는 음성이 커서 지난해 4월 첫 주일에 부임했다. 막상 와보니 어려웠다. 첫 주일 예배로 기억이 되는데 2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 모습이었다. 소규모 교회의 한계로 양육 훈련 시스템이 미비하고 조직 시스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예배에 사활을 걸었다.

처음부터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차치하고 예배부터 회복하자고 했다. 감사하게도 4~5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항산화 작용

이너비스의 약속

- ☑ 믿을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 제품입니다.
- ☑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인증 시설에서 제조합니다.
- ☑ 제3자 실험실 테스트로 라벨 내용과 제품 성분이 일치하는지 검증합니다.
- ☑ FDA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듭니다.

Produced in FDA Registered Facility

<p>1 물 없이 씹어먹는 애플 사이다 비네거</p> <p>60 츠어블 타블렛 \$13.99</p> <p>애플 사이다 식초와 유산균 및 여러 종류의 비타민으로 구성되어, 체중 감량, 해독, 콜레스테롤 저하, 소화 불량 예방, 에너지 증진, 신진대사 촉진 등에 탁월합니다.</p>	<p>2 물 없이 씹어먹는 간 회복제</p> <p>60 캔디 타블렛 \$16.99</p> <p>간 건강에 가장 좋은 조한인 밀크씨슬과 강황을 모두 함유하고 있으며, 모링가 및 다양한 비타민들로 구성되어 간 건강, 소화력, 독소 제거, 숙취제거에 도움을 줍니다.</p>	<p>3 에너지 & 무드</p> <p>60 캡슐 \$9.00</p> <p>에너지와 건강한 기분을 도와주는 다섯 가지 핵심 원료인 마그네슘, 비타민C, 마카, 아슈와간다, 루마라 푸아마로 만들었으며,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p>
<p>4 목넘김이 쉬운 비오틴 5,000mg</p> <p>120 베지터블 캡슐 \$9.99</p> <p>탈모 예방과 피부질환 개선 및 손톱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 에너지를 생성합니다.</p>	<p>5 목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p> <p>120 베지터블 캡슐 \$8.80</p> <p>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D 햇빛을 받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p>	<p>6 비타민 C500</p> <p>180 베지터블 캡슐 \$11.99</p> <p>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p>
<p>7 물 없이 씹어먹는 비타민 C 츠어블 500mg</p> <p>120 츠어블 타블렛 \$14.75</p> <p>쉽고 빠르게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B2, B6가 함께 들어있어 육체 피로와 면역력을 개선해 주며, 기미와 주근개 예방에 좋습니다.</p>	<p>8 엠에스엠 2,000mg</p> <p>150 타블렛 \$10.99</p> <p>활력있는 생활로 돌아가세요! MSM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 회복, 피부 노화 방지, 상처 치유 촉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p>	<p>9 면역력</p> <p>120 타블렛 \$11.99</p> <p>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p>
<p>10 간 건강 피로 회복제</p> <p>120 베지터블 캡슐 \$19.99</p> <p>한국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함량의 살리마린(밀크씨슬)을 포함하였으며, 검증된 비타민, 마네롤로 제조하여 간 건강뿐만 아니라 피로까지 회복시켜 주는 탁월한 제품입니다.</p>	<p>11 프리미엄 혈액순환</p> <p>150 캡슐 \$19.99</p> <p>검증된 다양한 비타민, 아연, 니아신, L-아르기닌, L-시트룰린, 마늘, 인삼, 허브 등 혈액순환에 좋은 고급 원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여,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p>	<p>12 타우린 500 플러스</p> <p>180 캡슐 \$14.99</p> <p>신경세포와 신경계를 보호하고 진정시켜 심장, 두뇌 등을 건강하도록 도와줍니다. 비타민 C와 작용하여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고, 항염으로 6개월 복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p>
		<p>13 피쉬 오일</p> <p>120 소프트젤 \$13.75</p> <p>높은 품질의 피쉬 오일을 사용하였으며, 다량 함유된 오메가3는 심장과 심혈관, 눈의 건강을 중요 요소로 사용됩니다. 또한 만성 염증을 완화해 줍니다.</p>

구매 방법

☎ 전화구매: 213-434-1170

🛒 현장구매: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기독샵

이너비스는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건강보조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최신 기술과 최첨단 제조 장비를 이용하여, 엄격하게 제조된 우수한 제품을 통해, 인류사회에 건강과 행복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믿고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성경 통독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오디오 성경

“단 30분의 녹음으로, 담임목사님의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보세요”

담임목사님 음성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가능



60DAY 신약통독
김은호
2022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십니다
김은호 목사와 함께 60일 신약듣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시면
교회별 맞춤 성경통독, 성경듣기표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전교인 통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의 호응 속에
성경통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일 성경통독
선한목자교회



90일 성경통독
온누리교회



100일 신약통독
중앙성결교회



공동체 성경 읽기
지구촌교회

AI 오디오 성경 특별 프로모션

프리미엄 패키지 : 교회(담임목사)

\$6,600 ▶ \$5,500

- 오디오 성경 음원(wav,mp3), 고급 USB 패키지
- 바이블리 앱 업로드 \$교인 무료 이용
- 교회 맞춤형 바이블리 통독 서비스(음원편집 & 배너광고)
 - 성경 66권 기준(권당 \$83)
 - 출석 교인 **300명 이하 : \$3,500(권당 약 \$53)**

*** 담임목사 + 원로목사 패키지**
- \$5,000 (담임목회자) + \$3,000 (원로목회자)
- 교인의 데이터로 제작 시 별도 논의 필요

베이직 : 개인(일반성도 및 부목회자)

\$3,300 ▶ \$2,500

단 한번의 녹음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가족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

- 오디오 성경 음원(wav, mp3) 제공
 - 바이블리 앱 개인 성경 업로드(향후 예정)
 - 성경 66권 기준 권당(약 \$35)

개인 오디오 성경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세요

기독일보

www.chdaily.com
T:(213)739-0403 chdailya@gmail.com
3055 Wilshire Blvd, Suite 480, LA, CA 9001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위하고 이민2세대를 섬기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om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기에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강지영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과 진보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323) 702-6709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안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622-2324, F.(909)622-1480/inlandchurch.org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213) 618-0614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아름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ia@hnsia.co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igmc.org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kumc.com

김경진 담임목사 기쁨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यो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로렌 커닝햄 목사의 마지막 인터뷰



로렌 커닝햄 목사 부부. 그는 아내 달린 커닝햄(Darlene Cunningham)을 소울 메이트이자 인생과 사역의 동반자라고 불렀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10월 6일 새벽 하늘로 돌아간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YWAM)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Loren Cunningham)는 지난 8월 한국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On earth as it is in heaven)'라는 제목의 가이드포스트 커버스토리(COVER STORY) 인터뷰는 박해민 씨가 미국 하와이에 있던 커닝햄 목사와 화상으로 진행했고, 이주영 선교사(Elijah Lee)가 통역을 맡았다.

그는 "하나님께 구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신다"며 "농장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가 가진 적은 돈으로 철조망과 우유 통과 건조 마차를 먼저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농장을 마련해 주신 것처럼"이라고 덧붙였다.

로렌 커닝햄 목사는 먼저 건강에 대해 "의사들은 제가 6-8주 정도밖에 못 살 것이라고 했지만, 2022년 11월 발병 뒤로 6개월 넘게 살아왔다"며 "처음에는 굉장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지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자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지금은 몸에서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의사도 '이 현상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깊은 평안이 임했고, 저 자신보다 남겨진 아내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며 "저는 아내를 소울메이트로 여긴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으면, 아내는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사람들을 모으는 인생과 사역의 동반자이자 동역자"라고 했다.

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와 나누고자 하실 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은 YWAM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역 지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DTS 설립에 대한 "YWAM의 첫 번째 학교도 순종함으로 시작됐다. 뉴질랜드 사역 중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스위스에서 훈련 학교를 시작하기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교육학 학위가 있었지만, 학교를 시작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세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셨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의 첫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집필한 책과 읽은 책 중 한 권씩을 골라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제가 권할 책은 성경뿐이지만, 한 권씩 권해보겠다. 제 책 중에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십니까?』, 읽은 책 중에서는 코리 텐 붐(Corrie ten Boom) 여사의 책 『주는 나의 피난처(The Hiding Place)』를 각각 권하고 싶다"며 "앤드류(Anne van der Bijl) 형제의 책 『하나님의 밀수꾼(God's Smuggler)』도 생각한다. 이 책들은 신앙에 대한 질문에 진정한 삶으로 답한다"고 소개했다.

커닝햄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그분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며 "일상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오늘날 떠밀려 오는 세상의 사고방식들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UMC 탈퇴 투표 요구한 美 오클라호마 교회들 패소

미국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교단 내 친동성애 기조에 반대해 연합감리교회(UMC)를 떠나려는 두 교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를 열어 55개 회원 교회의 탈퇴를 승인하기로 투표했다. 반면 퍼스트유나이티드감리교회와 서번트교회는 교단 탈퇴를 위한 투표가 허용되지 않은 것에 대응해, 연회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 교회는 탈퇴 불허가 종교적 교리가 아닌 재산 분쟁 때문이라며, 오클라호마 연회가 탈퇴는 허용하되 재산은 지키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회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탈퇴 승인을 거부했다. 지난 7월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의 알레티아 티몬스 판사는 퍼스트교회의 손을 들어 주며, 연회가 탈퇴를 방해하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판결했다. 또한 티몬스 판사는 연회와 대의원들에게 교회의 탈퇴를 고려하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클라호마시에서 위치한 퍼스트유나이티드감리교회와 서번트교회는 최근 UMC 오클라호마 연회에 탈퇴 투표 시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은 지난 5일 구두 변론을 들은 후, 민사 법원이 종교단체의 탈퇴 과정에 발언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며, 교회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6일 오클라호마 연회는 지역 매체 '오클라호마'에 발표한 성명에서 "오클라호마 대법원 판사들이 이 사건을 맡게 된 것에 감사하다. 법원의 서번 의견서가 작성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 중요한 문제에 투자한 시간과 관심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반면 퍼스트교회 지도부는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 "다음 단계를 고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운영위원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몇 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며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 교회 사역을 통해 계속 그분을 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모든 일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에도 티몬스 판사는 서번트 교회의 손을 들어 줬고, 결국 UMC 지방 감리사는 탈퇴 절차를 위한 교회 회의를 9월 5일로 계획했다. 그러나 연회는 그 판결에 항소하며, 그것이 지방법원이 수정 헌법 제1조의 자유행사조항(Free Exercise Clause)에 의해 보호되는 '교회의 내부 절차'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UMC는 수 년간 동성결혼식 축복과 공개적 동성애자의 성직 임명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어 왔으며, 현재까지 6,200개 이상의 교회가 교단을 떠났다.

지난 4월 오클라호마 연회는 특별 회의

김유진 기자

■ 강석진 목사의 북한교회사 이야기

월남한 피난민 교회의 고민

6.25전쟁 기간에 월남한 피난민 교회에서는 극적인 일이 종종 일어났다. 예컨대, 전쟁 중에 피난 길에서 뿔뿔이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그리워하다가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 전쟁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짐작했던 사람들이 마치 꿈을 꾸는 듯 재회를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로 피난민 교회에서는 사선을 넘어 이남으로 온 교인들이 형제자매처럼 동거동락했다. 집을 개방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교회를 이루기도 하였다. 이들 교회들은 주일과 매일 새벽 기도회까지 언제나 부흥집회를 개최하는 분위기였고 저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들 교회는 지난날 이북에서 신앙 생활을 안하던 사람들 중에는 피난 교회에 나오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 피난민 교회들은 부흥이 되어 가고 있었기에 그런대로 만족하며 다시 전세가 역전되면 이북으로 돌아 갈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에 매달렸다. 해가 바뀌게 되자, 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걸고 기도에 정진하였다. 그 당시 1952년에 최전선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었다.

피난민 교회는 크게 두 종류였다. 첫째, 전쟁으로 말미암아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교인들이 설립한 교회였다. 예컨대, 대구의 영락교회 부산의 창신교회 등이었다. 둘째로는 1.4후퇴 때 평양을 비롯한 이북 전역에서 남으로 내려온 월남 피난민 교인들이 설립한 교회였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영주교회와 군산의 군산교회 등이었다. 전자의 교회는 전쟁이 끝나면 본래의 자리(서울 등)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교회는 전쟁이 남한의 승리로 이북 지역을 다시 회복하는 경우에 고향(이북)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월남 피난민의 염원인 이북으로의 귀환이 지연되자 피난민 교회들 사이에 남한에서 이북 지역의 노회를 복구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같은 노회를 복구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피난민 교회의 교역자를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는 노회가 있어야 했다. 결국 이들 교회들은 자신들이 소속되었던



강석진 목사
'북한교회사' 저자

노회의 명칭을 되살려서 그 노회를 결성하고 사역자 안수를 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노회는 다시 이북으로 복구할 경우에 만 존속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국 교계의(이남지역)의 여론은 피난민 교회들의 노회 조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장로교회 노회는 본래 지역의 교회들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만일 피난민 교회들이 피난지에서 고향 노회(이북)를 회복하면 해당 지역의 노회와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마련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더욱이 장로교는 전쟁 중에 교단이 분열되어 고신교단이 생성된 상황이므로 교계의 여론은 이북 노회의 조직 가능성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교계의 지배적 여론은 피난민 교회로 하여금 지역의 노회에 가입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월남 피난민 교회들은 그러한 여론에 별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오직 이북 교회의 재건 운동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에게는 이북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이 최우선이고 이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엔 차선으로 남한에서 이북 교회를 설립한다는 입장이었다. 참고로 이북의 장로교의 노회는 12개로서 평북, 산서, 의산, 삼산, 용천, 평동, 평양, 평서, 안주, 함북, 황해 노회였다. 이 노회들 가운데 이남 지역에 7개 노회가 조직되었다. 평북, 용천, 평양, 안주, 함남, 황해 노회였다.

이처럼 피난지에 집결한 서울 및 이남 지역으로부터 내려온 피난민 교회와 1.4후퇴 시에 북에서 자유를 찾아 월남한 피난민 교회들을 피난지에 임시로 세운 군용막사와 허름한 가건물 등에서 불철주야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였다. 이들의 삶과 천막 교회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중에 장막에 거하면서 광야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다.

■ 강태광의 기독교 문학 산책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오리겐과 교회사에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이름이 남아있는 실제로 존재했던 초대 교회 지도자다. 그는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고 순교로 신앙을 고백했던 신앙인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의 2대 혹은 3대 담임 목사였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7개의 편지를 남겼다.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 중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아울러 이 편지는 이그나티우스가 남긴 7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였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이그나티우스 일행은 드로아로 북쪽 길을 거쳐 로마로 행하던 도중 잠시 서머나에 머무른다. 잠시 쉬는 시간에 몇몇 교회의 방문을 받고, 또 몇몇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머나에서 잠시 체류하는 이그나티우스 감독을 위로하기 위해 인접도시인 에베소 교회에서 방문했다. 당시 황제의 명을 어긴 죄로 압송되는 죄수를 만나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 오네시모 감독과 4명의 평신도 대표가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여 방문한 것이다. 로마로 가는 사람도, 그를 격려하고 배웅하는 사람들도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었다.

에베소교회 대표단은 담임목사였던 오네시모 감독, 평신도 대표인 크로쿠스(Crocus), 에우플러스(Euplus), 프론토(Fronto), 브루스(Burrhus) 등등이다. 이 4명의 평신도 대표 중의 한 사람인 부루스(Burrhus)는 그 후 이어진 이그나티우스 순교 여행에 동행했다. 그리고 이그나티우스의 서기로 그를 돕다가 이그나티우스가 필라델피아로 보내는 편지를 전달했다. (필라델피아 서신 11:2)

서머나에서 뜻밖의 환대로 큰 위로를 받은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펜을 들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다. 아울러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이 편지로 신앙의 바른길을 제시하며 이단을 배격하라고 권한다. 그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환란을 이기는 강인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독려했다. 왜냐하면, 당시 신앙생활은 실존적 박해와 위협을 각오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야수의 밥이 되어 사형당할 죄

수인 이그나티우스는 두려워 떨지 않았다. 순교의 길을 피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순교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 로마에서 야수들과 맞붙어 싸울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에베소 교회 서신 1:2)

에베소 교회 감독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와 동일인물이다. 본 서신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여러 번 오네시모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를 칭찬한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오네시모 감독을 서머나에서 처음 만났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자 오네시모 감독과 좋은 관계임을 칭찬하고 격려했다. "저도 여러분의 감독과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이런 좋은 감독과) 여러분이 좋은 관계가 있음을 축하합니다(에베소 서신5:1)."라고 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오네시모 감독의 조심성 있고 침묵을 지키는 성품을 칭찬하며 자신이 존경한다고 강조했다(에베소 서신 6:1). 그리고 자신이 존경하는 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목회자인 오네시모를 존경하기를 부탁했다. 나아가 이그나티우스는 주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이니 존중하라고 권하며, 자신이 만나본 오네시모 감독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다. 7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자랑하면서도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책망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8장에서 이그나티우스는 성

도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훈계했다.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속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권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영에 속한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과 같이 행할 수 없다고 가르친 것이다.

9장에서는 사악한 무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충고했다. 그들의 사악한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강조한다. 이그나티우스에 의하면 사악한 가르침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철두철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로 치장을 하고 말씀에 따라 구습을 버린 삶을 사는 것이다. 10장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권한다. 악한 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을 본받지 말고 신실한 삶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주라고는 권면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진실성 있는 침묵을 높게 평가했다. 6장 1절에서 오네시모 감독의 진중한 침묵을 칭찬하더니, 15장 1절에서는 '침묵을 지키며 진실한 것이 재잘재잘 지껄이면서 거짓된 것보다 낫다'고 말한다. 그 당시 교인들 중에 성도임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있었던 같다. 15장 1절 2절에서 예수님의 침묵의 모범을 설명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적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했다. 이외에도 그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 권면을 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인정하였다. 그는 겸손한 메신저로서의 위치를 강조했다.

이그나티우스의 에베소 서신은 당시 교회가 직면했던 일반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신앙 교회의 문제들과 유사한 듯 하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공동 서신들과 유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본 서신에는 소망의 메시지, 이단 경계와 종말론 그리고 일상에서의 경건 등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다. 자신을 찾아온 오네시모 감독과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교회 상황을 진단한 다음 성도들의 영적 삶을 권면했다. 사형집행을 당하기 로마로 가는 이그나티우스 목사의 믿음의 여유와 담대함이 풍성한 서신이다.

2023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이북) 목회학석사(M.Div.) 생당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for the Church
한국기독교총연합회 www.mbtb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지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 414-3754
Email: ks@mbtb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캠코스 수업
• CANVAS 기반 온라인 수업
• 실시간 화상수업
•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o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사역목사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석사, 상담심리학, 목회학 석사, 상담심리학, 신학, 광물기록지리학, 간호학, English M.Div.
• 박사 | 신학박사, 신학철학박사
주소 15605 Carner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입학문의 (621) 926-1023, ext. 300 www.ptsa.edu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 527-0691 (0692) Fax: (714) 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끄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 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 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urahell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itsia.edu



B T S
S O L A R
D E S I G 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70% Tax Benefit

2023년
대박



100%
Made in
USA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56% ~ 70%

연방 ITC : 30% 이상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3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 Zero Down Payment (PPA)
- ✓ 전기료 50~90% 절감
-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 전기세 50~90% 절감 ***

Why BTS Solar?

(왜 BTS 솔라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 ✓ 전기세 ~~30~50%~~ 50~90% 절감효과
-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 최고 성능의 안정적인 패널
- ✓ 모든 제품군 최장기간 Warranty
- ✓ 남가주 전 지역 최단기간 설치

• 태양광 설치 효과

태양광 설치 시 얼마나 많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첫째, 얼마나 많은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지, 둘째, 패널을 설치할 지붕의 방향과 각도가 태양광을 받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등에 달려 있습니다. 드론을 통해 현장 실사하듯 에너지 효율 체크합니다.

• 저렴한 맞춤형 파이낸스

별도의 담보도 필요없이 크레딧으로만 설치되며 가장 저렴한 Payment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설치 후 1년 동안은 100% 태양광 설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1년 후부터 Payment가 시작됩니다. Payment가 시작되어도 현재 전기료의 70~80%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안정적, 효율적 제품으로 신속 정확한 시공

한국인 팀장이 주축이 되어 고객과 소통하며, 최고의 설치 노하우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효율적인 제품만을 선별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시공합니다.

www.btssolardesign.com

TALK BTSSolar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문의 전전기세 고지서를 준비해주세요.
2. 전기세 고지서사진을 찍어서 Text Message 혹은 카톡주세요.
3. 메시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강준민 칼럼

그들까지 사랑하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그들진 얼굴을 가진 사람을 가끔 만납니다. 인생이 힘들어 그들진 얼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의 얼굴은 그들진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삶이 힘들었습니다.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그들졌다다는 것은 마음이 그들진 것입니다. 그들진 얼굴과 그들진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밝은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유머를 적절히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자가 된 후에도 밝은 얼굴을 갖고 살지 못했습니다. 유머를 잘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목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몇 안 되는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언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의 설교에 부족함을 지적하셨습니다. 탁월한 설교

자는 한 번의 설교에 두 번을 웃기고, 두 번은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 조언을 남기고 제가 섬기던 작은 개척 교회를 떠나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로 옮겨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조언을 따라 유머를 잘 묘사하는 재미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머에 관한 책, 11권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교에 적절히 사용할 만한 유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유머를 잘 구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도님들이 잘 웃지를 않으면 그다음 예배에서는 그 유머를 삭제하고 설교를 하곤 합니다.

제 기질은 우울과 담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모습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들진 얼굴을 잘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이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통해 그들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들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 햇빛도 그들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 나무 그늘에 앉아 / 나뭇잎 사이에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우나” (전반부).

정호승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저의 그들이 누군가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나무 그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세상에는 생각보다 그들진 얼굴을 하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진 얼굴을 가진 분들에게 공감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들진 얼굴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진 얼굴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들진 얼굴을 하고 싶지 않아 거울을 보고 밝은 얼굴을 연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그들은 연습으로 잠시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의 그들은 몇 번의 연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그들은 하나님의 따뜻한 그늘 아래서 안식할 때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손 그늘에 숨기십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사 49:2).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사 51:16).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손 그늘에 숨겨 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시 36:7). 하나님은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십니다. “폭양을 피하는 그들이 되셨사오니” (사 25:4). 무더운

여름날에 큰 나무 그들은 우리의 안식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들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그들진 마음을 치유해 주는 곳입니다. 우리의 그들진 얼굴을 밝게 만들어 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들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안셀름 그윈은 “그들까지도 품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늘을 직시하고 인식할 때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큼 이해하고, 아는 것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안셀름 그윈은 “많은 사람들은 그늘을 품는 순간 그들이 자신을 지배하게 될까 봐 불안해하지만 실체는 다르다. 네가 품는 그늘은 너의 삶을 풍부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안셀름 그윈, 『삶의 기술』, 분도출판사, 53쪽).

나무의 그늘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들진 인생도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그들진 인생을 선용하셔서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그늘 아래서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연약하고 유머도 부족한 종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

김한요 칼럼

방법 보다는 사람을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민수기를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많은 실망이 들며 모세에 대한 연민의 정까지 느낍니다. 200만을 헤아리는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팬데믹 전,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던 해 80여 명의 베델교인들이 유럽의 유적지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큰 버스 두 대로 나눠 타고 마틴 루터의 비텐베르크 성당, 칼빈의 종교개혁지 제네바와 제네바 대학 등을 방문하며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뜻깊고 많이 배워서 여행 잘 다녀왔다는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딱 한 가지 힘들었다고 느껴졌던 것은 80여 명이 같이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한 시간은 걸리고, 같이 식사할 식당도 찾기 힘들어 1진, 2진을 나누어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80명 인솔도 그런데, 하물며 200만 백성들을 인솔하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하기도 남습니다.

모세도 도중에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백성들

을 자기에게 맡기셨는지 심신이 지치고 영적으로 침체 현상까지 왔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모세 옆에서 '모세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은 왜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가장 옆에서 격려해야 할 형제 아론과 미리암도 불평하며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엠 바운즈

모세가 가장 지쳤을 때, 책임을 나누어 지도록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조직했습니다. 즉 조직개편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가문 고라를 위시한 250명의 지도자들이 단합을

하여 모세를 비방하며 대항합니다. 좋은 제도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엠 바운즈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좋은 사람이 있어야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시스템도 좋은 사람에 의해 개선되어집니다. 옛날 식에만 머무르려는 답답함과, 다 뜯어고치면 될 것이라고 믿는 순진함은 언제나 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답입니다. 종교개혁은 시스템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길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조선일보 가판대에서 기독교일보 신문 보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해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베르크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기독교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교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아의 정성이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진유철 칼럼

좋은 열매가 되는 신앙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아침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기본 좋은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들을 생각합니다. 주렁주렁 열린 좋은 열매를 바라보는 주인의 마음은 봄여름 동안 흙을 일구며 땀 흘린 수고와 비바람과 온갖 병충해와 싸우며 마음 졸였던 고통의 기억조차 환한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한해의 가을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로 인한 기쁨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도 기쁨이 되는 좋은 열매가 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가을을 기억하면서 주인이 기뻐하실 좋은 열매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열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나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르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16-20)

나무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도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오그 만 디오는 ‘아카바의 선물’이란 책에서 “유형의 물질을 남김보다 무형의 마음을 남김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눈에 보이는 부유한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받았지만 결국 허랑방탕하여 탕진한 후 거지같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날도 세워진 줄 알았다가 무너지는 사람을 보면 보이는 물질이나 사람의 인정, 보이는 직분과 업적, 보이는 세상의 크기나 화려함을 더 중요하게 붙들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깊은 고난을 통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더 귀중함을 깨닫고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유산으로 세상의 화려함을 쫓을 때는 박살 난 탕자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을 더 소중하게 붙들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의 사명으로 대만과 유럽 총회 선교사 가족을 초청하여 온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섬겼습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분들이 큰 위로와 도전과 회복을 얻고 임지로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좋은 열매가 되려면, 보이는 것들로 자랑하고 논공행상을 따지는 얕은 물가의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로 채워지는 깊은 곳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은 보이지 않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자산인 기도원 설립 38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유산보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 기도와 성령 충만을 더 소중하게 붙드는 믿음이 되어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선 나의 인생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좋은 열매이겠습니까? 살람!

구봉주 칼럼

하나님의 지혜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10월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어제 금요일에 시간에 때마침,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전한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왕은 자신이 쓴 지혜서,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잘 섬기는 것이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경외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영적인 지혜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순간순간 임기응변을 잘하는 세상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지혜였고, 그 지혜 때문에 그는 다른 모든 일에 그 지혜를 적용하여, 지혜로운 답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두각을 나타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엄마 중에 진짜 엄마를 구별해 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 반씩씩 두 엄마에게 나눠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는 아이를 양보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이를 양보한 엄마가 진짜 어머니 그녀에게 아이를 주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인간 사랑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가장 많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

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면, 단순히 신앙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으면, 인간 사랑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습니다. 배신 당했다는니, 시함들과 실족했다는니, 상처 받았다는니,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사랑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식 사랑으로 다른 이를 대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혜에 관련한 큐티 책에 나온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워져, 큰 집을 넘기고, 대가족인데, 아주 작은 임대 아파트로 입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값야 할 빛이 있어, 힘든 가운데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인분이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자신에게 큰 아파트 한 채가 있는데, 대부분 미국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가끔 방문하는 집이라 비워 두기도, 세를 주기도 그래서, 그냥 관리비만 내고 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관리비만 내면, 큰 아파트에 살 수 있으니, 좁은 아파트에서 고생하는 가족을 생각하면,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결국 제안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리비에 비해 누리는 복은 설명할 수 없이 크겠지

만, 그 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나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 빛을 하루 속히 갚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지혜가 분명합니다. 세상 지혜는 몇 십 만원 밖에 안되는 관리비만 내고, 큰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빛을 빨리 갚아, 빚준 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 신뢰를 감사하게 여겨, 갚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과 지혜는 언제나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삶이 꼬여 있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어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꼭 지혜를 주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세상 적으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뜻밖의 문제해결과 기적을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성경필사 장학생을 위한 후원자 모집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쓰고 눈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필사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몇 개월동안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을 내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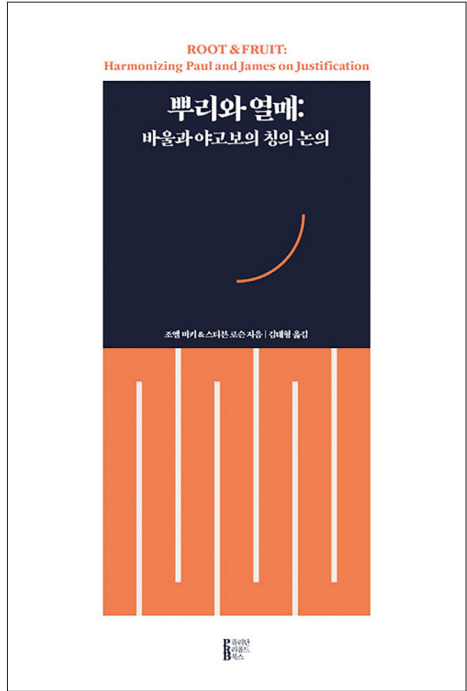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2등	3등
노트북	아이패드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다]

칭의 없는 성화, 성화 없는 칭의



뿌리와 열매: 바울과 야고보의 칭의 논의
조엘 비키 · 스티븐 로슨 | 김태형 역
| 퓨리타니움북스 | 90쪽
12,000원

저자들은 바울과 야고보가 완벽한 신학적 일치점을 이루며, 칭의를 강조하면(바울), 성화가 약화되는 것 같고, 성화를 강조하면(야고보), 칭의가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칭의와 성화는 한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와 열매임을 강조한다.

결코 쉽지 않은 주제에 관해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훨씬 두껍고 무거운 다른 여러 책보다도 더 중요한 책이 분명하다. 존 맥아더(그레이트 커뮤니티 교회 담임목사 / 『담대한 복음전도』 저자)

당신의 교회에 두 사람이 등록하러 왔다. 한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신은 누가 봐도 칭찬할 만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교인이라고 자랑한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죄를 깊이 뉘우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보인다. '후자가 참된 신자로우나!'라고 생각하기 전, 두 번째 사람이 다니던 교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복음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의 실제 삶은 완전히 복음과 거리가 멀다고 고발하는 장로들의 편지였다. 자, 그렇다면, 누가 진짜 신자인가? 조엘 비키와 스티븐 로슨은 <뿌리와 열매:

바울과 야고보의 칭의 논의>를 통하여 위에서 언급한 예시를 시작으로 명쾌한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한다. 존스 씨와 스미스 씨, 율법주의와 율법폐기론에 빠진 사람의 문제를 로마서, 야고보서를 가지고 진단한다.

어떤 사람은 칭의와 성화를 엄격하게 구분하려 한다. 잘못하면 이신칭의 교리에 행위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같은 오류에 빠져 오랜 세월 율법주의 복음의 폐해를 맞보고 오르지 못할 기준을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선물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당시 로마가톨릭은 루터 같은 잘못된 신앙을 양산하는 공장 같았다.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은혜가 아니라 성례를 의지했다. 그런 시대적 배경과 개인의 경험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렀다. 행함 없는 믿음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비키와 로슨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뿌리와 열매: Root & Fruit>라는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 뿌리 내리고, 위로는 반드시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인 선행을 맺는다. 오직 은혜로 거듭난 신자는 뿌리만 있고 열매 맺지 못한 상태에 머무를 정도의 은혜만 받지 않는다. 주님께서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 10:10).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아버지께서 속아주신다(요 15:2).

한 마디로 칭의 없는 성화는 율법주의 복음이고, 성화 없는 칭의는 율법폐기론적인 복음이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고, 한쪽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한쪽 혹은 둘 사이를 강력하게 연결하고 있는 황금 사슬을 끊을 수 없다.

두 저자는 이 단순한 성경적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강조한다. 칭의는 ①복음에 중심이 되는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②이단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기 때문에 ③교회 부흥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만드는 위대하고 탁월한 장려책이기 때문에 ④실제 목회 현장에서 믿음의 확신 부족, 인내 부족 등의 문제를 대처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⑤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이신칭의의 교리의 영광과 능력의 거듭되는 재발견이기 때문에(14-15쪽)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는가? 사실, 이 책이 말하는 칭의 교리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이단이 아니라면). 하지만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이 책이 말하는 만큼 칭의 교리를 강조하며 가르치는 교회는 많지 않다. 소수 교회는 지나치게 '뿌리'만 강조하여 성도로 하여금 '행함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을 가지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다고 선동한다. 대다수 교회는 극단적으로 '열매'만 말한다. 서로 사랑하고 친절히 대하고 욕하지 말고 인내하며 살자고 훈화한다. 열매를 맺게 하는 뿌리의 동력,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재발견하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봉사와 섬김의 할 일만 있을 뿐이다. 존 맥아더는 그래서 이 책을 가리켜 "훨씬 두껍고 무거운 다른 여러 책보다 더 중요한 책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92쪽의 소책자이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교리의 중요성과 적실성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다 해서, 열매만 잔뜩 들고 와서 우리를 증명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뿌리 없는 자들의 비판이라고 철저히 무시하는 것도 옳지 않다.



저자 조엘 비키 총장(왼쪽), ©크투 DB

우리는 계속해서 분명한 복음에 뿌리내린 삶, 풍성한 복음의 열매 맺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져 시냇물을 좇아 열매를 맺는 생명력과 힘을 보여주는 길은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뿐이다.

조엘 비키와 스티븐 로슨이 쓴 <뿌리와 열매>를 통해 모든 독자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사도행전 2:28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ACTS 2:28

FI PLUMBING
213-434-8947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FI PLUMBING

저희는 고객님의 편안한 생활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최고의 기술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만족할때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ABOUT US:

24시간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플러밍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CONTACT INFO

CALL:
213-434-8947
flplumbing2022@gmail.com

MORE CONTACT INFO:

@FIplumbing
 @FIPlumbing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오픈하이머> (3)

오픈하이머 핵무기? 기독교 종말론, 오히려 종말적 대규모 전쟁 막아

요한계시록에 바탕 둔 종말론적 세계관과 핵확산 금지의 국제질서 동양 세계관 바탕은 순환과 조화, 지구·인류 단기간 멸망 상상 않아 서양 세계관 대부분 종말 상정해, 전쟁범죄 히스테리적 거부감 품어

◆핵무기와 국제질서: 군사강국 사이의 전면전을 억지하는 핵무기

영화 <오픈하이머>에서 이론물리학자 오픈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를 완성되고 그 결과물이 확인되자 커다란 심리적 갈등을 겪게 된다.

프로젝트 초반만 해도 그의 마음 속에는 인류가 순탄 적 없던 막강한 힘을 통제하고 활용하려는 프로메테우스적 욕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자신과 동료들이 만들어낸 대량 살상무기가 실제로 일본에서 20만 이상을 학살하게 되자, 그때부터 그는 자신이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선사한 것은 아닌지 고뇌하게 된다. 핵실험이 처음 성공한 현장을 목격하고 오픈하이머가 한 말,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는 핵폭발의 위력 앞에서 그가 느낀 경외감과 당혹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작중에서 이 대사 속에 담긴 당혹감은 프로젝트 성공을 축하하는 동료들의 환호와 오픈하이머 개인의 성취감 때문에 묻혀버린

폭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때 시작된 핵무기 경쟁으로 현재 9개국에 약 13,000여 기의 핵무기가 비축돼 있다. 이는 전 인류를 멸망시키기에 부족하지 않은 양으로 추산된다.

핵을 주무기로 쓰는 광기 넘치는 핵전쟁이 실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오픈하이머와 그의 동료들은 분명 인류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오픈하이머>의 러닝타임 상당 부분을 그의 매카시즘 마녀사냥에 할애했다. 이것은 어쩌면 놀란 감독이 휴머니즘 관점에서 오픈하이머가 세계에 거대한 죽음의 위협을 가져온 데 대한 나름의 형벌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했을 수 있다. 그런데 핵무기에 관한 정치적·역사적 정황은 생각처럼 그리 단순하지 않다. 대량살상무기가 인류의 상황을 절대로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 대규모 핵전쟁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는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 발발이 위험 수준에 이른 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 일은 없고, 오히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핵무기의 존재는 군사대국 사이의 전면전을 억지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냉전 시대는 물론이고 신냉전 시대인 현재에도 국제적 대리전은 빈발하고 있지만, 전 세계 초강대국들이 직접 대규모 살상을 자행하는 세계대전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이는 강대국들이 평화를 사랑해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이론물리학자 오픈하이머의 생애를 그려낸 영화 <오픈하이머>.

받으며, 해당 국가 역시 파탄에 이르게 된다. 핵보유국 기득권자들은 핵무기 사용이 그들이 가진 정치권력과 경제력, 그리고 그들의 목숨 전부를 앗아갈 것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전쟁 억지력을 위해 비축돼 있을 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픈하이머가 느꼈던 우려와 죄책감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핵무기 개발이 무조건 인류에 해악만 끼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국제정치와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핵무기 개발의 책임을 오픈하이머라는 개인 혹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20세기 초 이론물리학의 화려한 발흥, 파시즘-공산주의 물결, 그리고 제1·2차 세계대전이라는 기술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핵무기 개발은 이미 필연일 수밖에 없었다.

굳이 오픈하이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다른 이가 반드시 핵무기 개발을 이뤄냈을 것이다.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은 무수한 인간 군상의 죄성을 따라 탐욕과 증오, 악의가 가득한 채로 흘러왔다. 상대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압박하고 죽이는 데 주안점을 둔 무기체제 발전은 인류 과학기술 발전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처럼 악의와 탐욕, 무절제가 지배하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세계가 그나마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서구의 종말론적 세계관 덕분이다.

동양의 세계관과 윤리란 대개 길으로 조화와 인간애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권위적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오늘날 중국과 북한 등 서구 기독교 윤리와 박애의 정신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보이는 외교 행태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패권국들 또한 지배욕과 물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서구 패권국들이 추구

하는 국제질서는 최소한 전 인류가 공존 가능한 세계를 유지해 나가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서구 세계관이 지난 1,900여 년 동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바탕으로 확립되어 왔기 때문이다. 동양의 세계관은 전반적으로 순환과 조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연 만물이 항상 순리를 따라 운행된다는 동양적 세계관 속에서는 지구와 인류가 단기간에 멸망에 이르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성경 계시를 근간으로 삼는 전통적인 서구 세계관 속에서 지구와 인류는 항상 종말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종말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은 특히 대규모 전쟁범죄에 대해 히스테리에 가까운 거부감을 갖게 만든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는(계 6:4)” 붉은 말을 탄 두 번째 기수에 대한 예언은 서구에서 대규모 전쟁을 예견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언급되곤 했다. 이는 통제되지 않는 집단적인 탐욕과 악의가 반드시 전쟁을 유발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믿음이 서구 역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예고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 확고한 두려움은 종말을 초래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어떻게든 저지해 보려는 집단적 노력으로 구체화되곤 했다. 특히 핵무기가 등장하고 미국 외에 여러 군사강국들도 함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핵무기 사용과 확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강력한 보복의 질서가 형성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유대인 출신이지만 무신론자였던 오픈하이머도 기독교의 종말적 세계관 및 역사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살아온 미국의 문화적 기반 전체가 기독교적이었기 때문이다. 바가바드 기타에서 크리스누나가 ‘세상의 파괴자’를 자처한 것은 인간의 삶이 수많은 환생의 한 과정으로서 죽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순환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박욱주박사(연세대연합신대학원겸임교수)



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의 전조, 네 명의 기수.

다. 하지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고 수소폭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세상에 거대한 죽음의 위협을 가져온 데 대한 당혹감은 이내 무거운 죄책감으로 변한다. 전편에 기술한 대로 일본에 투하된 두 발의 원자폭탄은 그 자체로는 한국 기독교 해방의 결정타였고 종교의 자유를 향한 세계 역사의 진보를 확정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 원폭 투하 사건은 열강들의 패권 욕망을 자극하는 기

그런 것이 아니라, 상호 확증파괴의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정권에 반드시 그에 준하는 보복을 가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이런 강력한 보복 방침이 없다면, 오픈하이머가 두려워한 것처럼 실제 핵무기 사용이 일상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핵무기와 요한계시록: 핵무기 통제로 인류의 멸절을 막는 종말론적 세계관 핵무기를 사용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담임목사 청빙

플로리다 주 크레스트뷰(FL, Crestview)에 소재하고 있는 새생명한인장로교회는 설립 17년 된 교회로 북미주개척장로교단협의회(NAPARC)에 소속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동남부노회 산하 지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청빙요건**
 - 구령의 열정과 소명감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연구에 착념하시고 영적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이끄실 목회자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가 지정된 신학대학원 (M.Div)을 졸업 후 목사 안수받으신 분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로 설교와 상담이 가능한 분
 - 미국에서 사역함에 경력사유가 없는 분 (시민권/영주권)
 - 목회 경력이 10년 이상 되신 분 (담임목사)
 - 기혼자로서 연령이 45세 이상 되신 분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E-mail로 만 받습니다.)
 - 이력서 (본인과 가족사진 포함)
 - 목사 안수 증명서, 최종 학위서
 - 신앙 고백서
 - 목회 계획서
 - 설교 (영상 파일) 2편 및 교회 홈페이지 설교동영상 사이트 소개
 - 최근 교회주보 (2회)
 - 추천서 (2장)
- 보내실 곳** suk.c.kurtz@gmail.com 청빙위원회서기 서숙자 권사(850)699-5448
- 서류 제출 마감일** 2023년 10월 31일(도착)
- 기타**
 - *모든 서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 드리며, 추가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청빙하는 교역자의 사례와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서류 심사 후 인터뷰 이전에 알려드립니다.

새생명한인장로교회 새생명한인장로교회 임시당회장 최진목 목사 / 담임목사청빙위원장 신철 정로 / 서기 서숙자 권사
New Life Korean Church | 5502 Old Bethel Rd, Crestvie, FL 302536

담임 목사 청빙

워싱턴 벨뷰에 소재한 벨뷰 필그림 장로 교회(PC USA)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학력-정규신학대학 및 대학원 졸업하신 분
- 경력-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년 이상 시무하신 분(이민 목회)
- 소속 PCUSA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이중(한국어 영어) 언어가 가능하신 분
- 미국 영주권자 이상

제출서류

- 자필 이력서
- 목사안수 증명서 사본,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사본 각 1통
- 추천서 2통(목사, 장로 추천서 각 1통,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입)
- 최근 6개월 설교 2회분(동영상 파일, YouTube link)
- 신앙 고백서 1부
- 목회 비전서 1부
- 자기 소개서 (성장 과정 및 활동 내역 중심)

제출 마감일시 : 2024년 1월 31일

제출처우편 : Korean Pilgrim Presbyterian Church
6016 SE 120th Ave, Bellevue, WA 98006 e-mail: kppc.friendship@gmail.com

기타

- 제출 서류는 보안에 유의하며 청빙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는 e-mail로 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한인 필그림 장로 교회 청빙위원회

제 2 회 WE BRIDGE CONFERENCE

작은교회를 위한 전도와 목양 컨퍼런스

남가주의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목회자와 사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체험했던 많은 은혜들과 사연들을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We Bridge 교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귀한 말씀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컨퍼런스 신청은
구글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SCAN ME!

MAIN SPEAKER



저녁 연합집회 설교
김영길 목사(TMF 대표)
(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



개회 예배
권 준 목사
시애틀형제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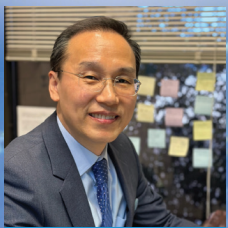


폐회 예배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SEMINAR SPEAKERS & PRAISE



"성경 중심 소그룹목회"
유경재 목사
나성북부교회 담임
총신 신학대학원 M.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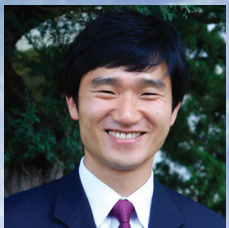
**"말씀에 능력을 붙여넣는
내러티브 설교"**
김귀보 목사
달라스 큰나무교회 담임
내러티브 설교 연구소 소장



"전도는 기쁨이다"
유성국 목사
GOSPEL TO ALL 전도센터
부에나파크 뉴라이프 선교교회(96-16)



**"공립학교의 현실 &
시대적 사명"**
유수연 사모
CA ABC 통일교육구 교육위원장
GATEWAY ACADEMY 대표



"신천지 강의"
에스라김 목사
생명의 바람교회 담임
미주 바이블 백신 센터장



**"예수님의 비전 멘토링을
통한 전도와 양육"**
살림김 박사
비전멘토링 인터내셔널 대표
플러신학대학원 Ph.D



집회 예배 찬양
원하트 미니스트리

날짜 : 2023년 11월 6일(월)~8일(수)

장소 : 감사한인교회 6937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0

등록마감일: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선착순 마감(등록비 없음)

☎ 213.739.0403 ✉ webridgeinfo@gmail.com

기획 : Oneheart Ministry 주관 : 기독교일보, ING

후원 : We Bridge 후원 교회, 감사한인교회, BTS Solar, 달라스 큰나무교회

